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(배포) 2018. 8. 6(월)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

과장 신양수, 주무관 이화선
(044-200-2772, 2786)

국무총리 세종공관,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

- 연 93,000kW 생산으로 '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' 적극 동참
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8월 6일(월), 국무총리 세종공관 (세종시 하나로 소재)에 7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.
 -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하루 평균 3.5시간 동안 255.5kW, 연간 약 93,000k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.
 - 이를 통해 세종공관 연간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20% 수준의 에너지 절감과 연간 36.7톤의 이산화탄소(CO₂) 감축 효과가 예상됩니다.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세종공관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'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'*에 일조하고, 주택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
*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: '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%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이행계획'(17.12, 산업부 발표)

※ (붙임) 국무총리 세종공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진

전경



업무동·연회장

